

대웅제약 "신약 삼총사로 매출 5兆 시대 열 것"

(2027년)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가 3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신정훈 기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독소신(나보타), 위 식도역류질환 치료제(백수프라잔), 당뇨약(이나보글리플로진) 등 자체 개발한 신약 3총사를 앞세워 2027년께 '연 매출 5조원 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7년 동안 회사 덩치를 다섯 배 키웠다는 얘기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3일 기자와 만나 "10여 년 전 뿌린 '연구개발(R&D) 씨앗'이 하나둘씩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며 "2027년에는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들 서너 개 거느린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보타가 끌고, 백수프라잔이 밀고 "너무 공격적인 목표가 아니냐"는 질문에 전 사장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가 말한 '믿는 구석'은 신약 트리오다.

1번 타자는 나보타. 최근 메디톡스와의 특허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메달 수출 신기록을 쓰고 있다. 전 사장은 "나보타의 강점은 세계 1위 보톡스 기업인 엘란과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이 20% 싸다는 것"이라며 "이를 활용해 판매허가를 받은 80개국을 차례차례 공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점유율을 2024년까지 30%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글로벌 '넘버2' 시

1 나보타, 메달 수출 신기록

2 식도염 신약, 올가을 허가날 듯

3 당뇨약, 임상 2상서 효과 증명

"신약 후보군 30여 개 갖고 있어 자가면역치료제 기술수출 협의도"

장인 중국에는 내년에 진출하기로 했다. 전 사장은 "대웅과 해외 파트너가 판매하는 나보타 매출은 2025년부터 조(兆) 단위에 이를 것"이라며 "이 중 5000억원 가량은 대웅제약에 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가을 '34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백수프라잔도 나보타 못지않은 기대주다. 미국 중국 등 해외 제약사들이 백수프라잔을 현지에서 팔기 위해 1조원을 대웅제약에 건넨 정도로 약효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백수프라잔은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펌프를 차단하는 기전의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제로, 기존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제에 비해 약효가 빨리 나타나고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게 강점이다. 전 사장은 "백수프라잔이 잠식할 수 있는 PPI제제 시장 규모는 35조원에 달한다"며 "백수프

라잔과 나보타의 해외 판매가 궤도에 오르는 2025~2026년에는 해외 매출이 국내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신약 창고에 30개 더 있다"

'2027년 매출 5조원' 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은 이나보글리플로진이다. 임상 2상에서 기존 치료제보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매 목표 시점은 2023년. 전 사장은 "임상 결과를 보면 계열 내 최고(best-in-class) 신약이 되기에 충분하다"며 "당뇨환자가 워낙 많은 데다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웅제약에 장기큰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사장은 이들 신약 3총사의 뒤를 이을 '미래 먹거리' 후보군을 30여 개 갖고 있다고 했다. 리스트에는 항암제, 비만 치료제, 안구건조증 치료제 등이 올라 있다. 2018년 전 사장이 취임한 뒤 후보물질 수가 두 배가량 늘었다.

상당수는 성공 가능성이 엇보이는 '뿔성부름' 후보로 꼽힌다.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수출을 협의하고 있는 자기면역치료제가 대표적이다. 폐섬유증치료제는 연내 한국과 미국에서 글로벌 임상 2상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 사장은 "국내외 50여 개 바이오벤처를 대상으로 지분 투자 및 공동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항암제와 자가면역 질환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업체가 주요 타겟"이라고 말했다.

오상현/이선아 기자

아이엘사이언스, 미래차사업 '시동'

"전기차 관련 사업체 인수할 것" 5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스마트광학 전문 기업 아이엘사이언스가 최근 개발한 헤드램프 멀티빔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등 미래차 관련 사업체 인수에 나선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실리콘렌즈 기술력을 앞세워 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의 핵심 소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이엘사이언스는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한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자금은 전기차 등 미래차 관련 사업체를 인수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 회사는 최근 개발한 자동차 헤드램프 멀티빔 시스템을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헤드램프 멀티빔 시스템은 도로 표면을 정확하게 밝혀주면서 마주 오는 운전자의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하는 고도의 제조 기술력을 요구한다. 아이엘사이언스는 2015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발광 다이오드(LED) 실리콘렌즈를 통해 이런 기술을 실현했다. 실리콘렌즈는 직진성이 강한 LED 광원의 각도를 굴절시켜 빛의 방향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다. 필요한 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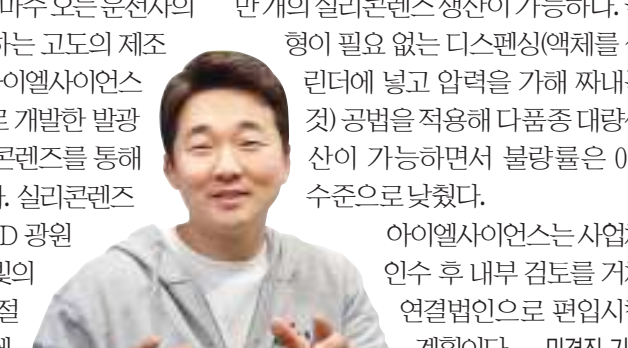
집중적으로 조명을 출력할 수 있어 헤드램프 멀티빔 시스템에 적합한 소재다.

기존 플라스틱 대비 에너지 효율이 약 13% 높으면서 내연성(불에 견디는 성질)이 강한 것도 실리콘렌즈의 장점이다. 무게는 유리 렌즈의 절반 수준으로 가볍기 때문에 경량화가 관심인 전기차에도 적합하다. 아이엘사이언스는 자동차 전장용 실리콘렌즈를 기아자동차에 공급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 625만대에서 2030년 3890만 대로 연평균 15%씩 성장할 전망이다. 송성근 아이엘사이언스 대표(사진)는 "친환경 트렌드로 전기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차량 경량화 수요가 커지면 실리콘렌즈 수요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엘사이언스는 1만7000㎡ 규모 충남 천안 스마트공장 4개 라인에서 월 250만 개의 실리콘렌즈 생산이 가능하다. 금형이 필요 없는 디스펜싱(액체를 실린더에 넣고 압력을 가해 짜내는 것) 공법을 적용해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하면서 불량률은 0% 수준으로 낮췄다.

아이엘사이언스는 사업체 인수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연결법인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민경진 기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현장관리 씨아이솔루션, 안전·효율 다 잡았다

출동 직원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현장 영상을 찍으면 중앙 관제실의 대형 모니터 중계된다. 현장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중앙관제실 직원이 무선 버튼으로 출동 직원을 호출해 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정비기술(IT) 기업 씨아이솔루션이 지난 6월 개발한 스마트폰 기반 실시간 사업현장관리 시스템 '루키토키'의 운영 방식이다. 최동성 씨아이솔루션 대표는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공사 현장을 중앙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보며 통제가 가능하다"며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중소기업도 손쉽게 저렴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루키토키는 무전기와 영상 중계를 기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스마트폰과 PC 모두 사용 가능하다. 프로그램에는 사진 전송 기능과 채팅 기능 등도 포함됐다. 최 대표는 "영상, 사진을 보면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며 실용성을 강조했다.

루키토키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은 '가변 해상도 전송 방식'이다. 네트워크 연결 상황이 좋으면 중앙 관제실의 대형 모니터 중계된다. 현장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중앙관제실 직원이 무선 버튼으로 출동 직원을 호출해 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최 대표는 기업에 현장 안전관리 책임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루키토키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기업이 각종 안전 보건 조치를 강화하는 데 평균 9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루키토키를 사용하면 추가 장비 도입 없이 100만원 안팎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서울바이오시스, 사상 최대 실적 2분기 매출액 1316억원 달성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2분기 매출 1316억원, 영업이익 112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늘어나며 두 분기 연속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순이익은 1년 전보다 41% 늘어난 91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누계 순이익이 228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순이익(196억원)을 넘어섰다.

이정훈 대표가 취임한 서울반도체의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는 패키지가 필요 없는 발광다이오드(LED) 제품 와이캡 매출이 전년 대비 68%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자외선 LED 부문도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됐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올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실적을 달성하면 세 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쓰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 투자도 올 상반기에 진행돼 성장 모멘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미세먼지 분해하는 인조잔디... 충격 흡수 탁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웰니스, 충전제 깨짐·부상 위험↓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내 거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베란다와 정원, 옥상을 인조잔디로 꾸미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인조잔디는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천연잔디 대비 관리가 쉬운 게 장점이다.

충남 천안에 있는 웰니스는 배수판에서부터 충전제, 인조잔디에 이르는 시스템 전체를 공급하는 업체다. 이 회사 인조잔디는 미세먼지를 분해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다. 강태순 웰니스 대표는 "일반 잔디는 미세먼지가 붙으면 그대로 남아 있지만 웰니스 인조잔디는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있어 미세먼지를 흡착 분해한다"고 설명했다.

웰니스는 인조잔디 필수 구성체인 충



강태순 웰니스 대표가 인조잔디 성능을 설명하고 있다. 웰니스

진제의 문질과 깨짐이 적은 것도 장점이라고 밝혔다. 충전제는 인조잔디의 부족한 충격 흡수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다. 이 충전제가 문질러 부상을 유발하기 쉽고 깨지면 웃과 신발에 달라붙거나 호흡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웰니스 충전제는 '고흡수성 수지(SAP)'를 적용해 문질과 깨짐 현상을 줄여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AP는 아크릴산과 수산화나트륨을 혼합해 만든 흰색 분말

형태의 흡수수지다. 자체 무게 수백 배의 수분을 흡수하는 소재로 알려졌다.

강 대표는 "충격 흡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열화상이나 철과상 등 부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시험 결과 웰니스 충전제의 충격 흡수성은 60%로 조사됐다. 그는 "웰니스 충전제는 물을 흡수했다가 건조할 때 조금씩 수분을 방출해 열화상이나 철과상 위험이 다른 제품보다 더 적다"고 밝혔다.

배수판 및 충격흡수패드가 일체형인 것도 이 회사 인조잔디의 특징이다. 하단에 들어가는 배수판과 충격흡수패드를 하나로 만들어 예산을 절약하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설명이다. 경기 용인도시공사 아로피아스포츠센터, 충북 충주 수안보 다목적운동장 등에 웰니스 인조잔디가 설치됐다.

강 대표는 "충진제 수거와 교체, 인조잔디 부분 교체 등도 모두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2021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소개,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분야, 디지털 혁신전략, 디지털 마케팅, 라디십, 운영관리, 디지털 기술,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운영관리 디지털 전환